

무관막 임플란트

이동영*, 허익, 박준봉, 권영혁, 이만섭
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골유착성 임플란트의 장기간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임플란트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.

무관막 임플란트(flapless implant)란 관막을 거상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술 후 골의 흡수와 치은 퇴축이 적으며, 수술시 외상이 적고, 짧은 수술시간으로 환자에게 편안감을 줄 수 있다. 또한 술 후 연조직 치유가 빠르고, 합병증이 적으며 무엇보다도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다.

그러나,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손의 감각에 의지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열개 및 천공이 있을 경우 관막의 거상 없이 처치가 곤란하므로 술전에 간존 치조제의 형태에 관하여 방사선 검사 및 철저한 임상 검사가 필수적이고, 임플란트의 직경만큼 각화조직이 소실되므로 각화조직이 충분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이번 임상 증례는 관막을 거상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수술시간이 짧고, 치유가 빨랐으며, 심미적으로도 환자와 술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증례 1

선천적으로 치아가 결손된 우측 하악 제2 소구치부에서 무관막 임플란트 식립

증례 2

치근 외흡수와 치근단까지 골파괴가 진행된 좌측 상악 전치부에서 관막의 거상없이 발치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